


53

第53回 韓日經濟人會議

# 報告書

THE 53<sup>rd</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 0 2 1 . 1 1 . 2  
SEOUL  TOKYO





# 第53回 韓日經濟人會議 韓日産業技術 FAIR 2021



(社)韓日經濟協會,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一社)日韓經濟協會,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좌)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도쿄)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

## | 서울회의장 전경 |



## | 동경회의장 전경 |





| 개최인사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 내빈인사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 기조연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 영상녹화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



## | 전체회의 |

### <좌 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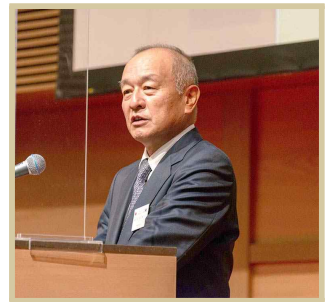
이동근 삼성KPMG 상무



모리야마 토모유키 SJC이사장(한국미쓰비실산 사장)



권낙현 H2KOREA대외협력 센터장



미야우치 다카히사 간다외국어대학 학장

## | 질의응답 |



김영겸 중앙컨설트 기술고문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만 전경련 실장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김대하 한기련 회장 ((주)농심재팬 사장)

| 공동성명낭독 |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우치다 도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폐회인사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 목 차

I. 개최성과 .....	1
II. 공동성명 .....	4
III. 회의일정 .....	6
IV. 발표내용(요약) .....	8
V. 대표단 명단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	12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	19
VI. 의 사 록 .....	27
1. 개 회 식	
1) 단장인사	
김 윤(金 鈞) 단장 .....	28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	29
2) 내빈인사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30
아이보시 코이치 (相星 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32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34



## 2. 기조강연

### 1) 한국측 기조강연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SK Group 회장 ..... 35

### 2) 일본측 기조강연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아소시멘트(주) 회장 ..... 38

## 3. 전체회의

### 1) 이동근(李東根) 삼정KPMG 상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 42

### 2)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 · 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상황 ~ 현장 보고』 ..... 46

### 3) 권낙현(權洛顯)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 52

### 4)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神田)외국어대학 학장

『청년들이 열어나가는 미래』 ..... 57

## 4. 폐회식

1) 공동성명 채택 ..... 66

### 2) 단장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 68

김 윤(金 鈞) 단장 ..... 69

### 3) 폐회

## [부록]

1. 주요 언론 기사 모음 ..... 77

2.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 조사 결과 ..... 191

3.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국어, 일본어) ..... 199

# I.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성과

## I. 개요

1. 개최일시 : 2021. 11. 2(화) 13:30~17:30
2.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 - 오쿠라호텔 도쿄 연결 화상회의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06명
  - 한국 측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98명
  -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08명
4. 회의주제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 II. 개최 결과

### 1. 개최 성과

-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 간 갈등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면에서도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멈춤없는 교류와 경제협력의 등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635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6회 연기 : '91년 걸프전쟁, '11년 동일본대지진, '17년 한국 대선, '19년 한일 갈등, '20년 코로나 팬데믹, '21년 코로나 팬데믹
-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기로 하는 '새로운 미래 창조 선언' 공동성명을 채택
  -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 창조·경제교류 확대·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교류·우호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해 연계해 추진해 나가기로 선언
    - 제3국에서의 협업,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국제공조

##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 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
  - 하루빨리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
-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
  -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
-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

- 다 음 -

### 1.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
-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 2. 교류·우호 인프라

- 연계·협조의 기반은 상호 이해와 신뢰이며, 양국 연계의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신
- 미래를 향한 한일 우호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의 차세대 교류와 지역 간 등 풀뿌리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 3. 정부에 대한 기대

-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기대

- 다음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개최



□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NHK,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간 새로운 미래 창조를 향한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언론사 지면·사진기사 포함 86여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 3.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 종합평가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일을 웹으로 연결하여 화상회의로 회의를 개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미래 창조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

○ 코로나 팬데믹, 교류 중단이 지속되는 등 한일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회의장에 200여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한국 98명, 일본 108명 (韓회의장 98명(韓76/日22), 日회의장 108명(日81/韓27))

#### □ 향후 후속조치 계획

(1) 회의결과 요약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제작, 발송

(2) 대정부 공동성명서 제출

(3)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 의제 선정

## II.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11월2일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일본국 도쿄도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8명이 참가했다.

세계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진척되는 등 호전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루빨리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더욱이,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진전되고 있다. 양국 기업에 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양국에 있어서,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 공통의 과제이지만, 그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며, 이의 달성을 향한 한일의 제휴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 1.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

## 2. 교류·우호 인프라

연계·협조의 기반은 상호 이해와 신뢰이다. 한일 경제인은, 양국 연계의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또한 미래를 향한 한일 우호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의 차세대 교류와 지역 간 등 풀뿌리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 3. 정부에 대한 기대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다음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1년 11월 2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 Ⅲ.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일정

THE 53<sup>rd</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12:00~13:00 (오찬) 등록 · 접수

13:30~14:20 개회식 ----- 2F Crystall Ballrom I · II

13:30~13:35

개회

13:35~13:45

단장인사

- 김 윤(金 鈞) 단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 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일한경제협회 회장 ·  
미쓰비시상사 前 회장)

13:45~14:20

내빈인사

-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14:20~15:00 기조강연

14:20~14:40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SK Group 회장

14:40~15:00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사)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아소시멘트(주) 회장

15:00~15:20 COFFEE BREAK

15:20~17:00

전체회의

좌 장 : 염재호(廉載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 · SK(주) 이사회 의장

15:20~15:25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15:25~15:40 이동근(李東根) 삼정KPMG 상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15:40~15:55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 ·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상황 ~ 현장 보고』

15:55~16:10 권낙현(權洛顯)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16:10~16:25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神田)외국어대학 학장  
『청년들이 열어나가는 미래』

16:25~17:00 의견교환

17:00~17:10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17:10~17:30 폐회식

17:10~17:20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17:20~17:30 양국단장 폐회인사

17:30 폐회

18:00~19:30 만찬교류회

## IV.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

### (개회사)

#### □ (韓)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

-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하여,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간 외교경색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임을 언급
-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
-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한일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
- 양국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비롯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 지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어프로치가 유효
- 경제·인재·문화교류의 내실화·확대를 강조

### (축사)

#### □ (韓)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
-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제시
  - \*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
  - \* 아·태 지역 경제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

#### □ (日)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한국 세 번째 근무
- 기시다 총리-문재인 대통령 전화통화, 외교당국 원활한 소통 위해 노력
- 양국 공동 대응과제 많이 있으며, 지방창생, 저출산·고령화 급선무, 기후변동, COP26 개최
- 한일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효과 감축 목표 달성 노력
-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위한 전력 수요 필요
- 지역 안전, 한미일 협조 필요
-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 완화, 격리기간 단축, 쉽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대면 교류 기대

□ (韓)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내년 상반기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발효도 예상되고 있어,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 기후 위기, 미중 대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양국 경제인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기조연설)

□ (韓)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주) 대표이사 회장

○ 현실 인식

- 코로나 팬데믹과 양극화 심화, 사회문제(고령화, 저출산, 고용률, 자살률, 디지털 경쟁력) 심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유동성 활용

○ 경제계의 역할

- 개별기업의 이윤추구 및 개별 기업간의 협력에서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 사례(일자리 문제)

○ 제언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경제계 협력→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

□ (日)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아소시멘트(주) 회장

- 일한경제협회/재단이 50년 이상에 걸쳐 실시해온 한일교류활동에 대해 1987년 협회 가입 이래 매년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 2004년부터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চে어맨을 맡아 온 경험을 토대로 발표

- 한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5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화 지속을 평가, 이 회의를 보다 의미 있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논의해 온 내용을 '액션,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액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강조

- 2004년에 제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2019년까지 총 26회, 2300명 교류), 2007년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OB/OG 단체를 만들어 「한일학생미래회의」 교류 활동 지속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양국 중견중소기업 산업기술력 향상, 재한일본기업 CSR 활동 사업(인턴 실습 프로그램), 아소시멘트의 한국청년인재 채용사례, 한일 경제연계 제3국 시찰 미션(한일 공동 프로젝트 110건 이상, 총사업비 27조엔) 등)

- 한일 자매도시 제휴 건수는 165건. **큐슈·한국경제교류회의 / 호쿠리쿠·한국경제교류회의와 좋은 연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깊고 지속 가능한 한일 지역 간 교류를 지속**

- 경제발전의 중요성, 지구환경유지에 대한 협력체제 등이 중요한 때에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가 공유하는 과제를 우리 현역 경제인이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가기를 기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

하고, 토론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양국의 경제·인재·문화교류의 한 부분을 큰 일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함

#### (전체회의)

##### □ (韓) 이동근(李東根) 삼정KPMG 파트너(상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 코로나가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급속한 변화, 미래의 불확실성), 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기능/산업의 비대면화, 온라인 역할 강화, 디지털 워크 부상, 스마트 팩토리 확산, 디지털 직원 확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IT인프라·업무구조 재설계),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경영진 주도 톱다운 디지털 혁신, 소비자 변화 포착 대응, 플랫폼 기반 고객경험 차별화, 디지털 기업문화)
-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적합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진 주도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확보 및 디지털 기업문화 정착
- 디지털 시대의 한일 기업간 협력 방안 제언
  - 한일 회원사 성공사례를 온라인 설명회, 세미나 형태로 기업 간 상호 교류 증진 제언
  - \* 한일 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사례, 한일 소비자 행동 패턴 변화, 한일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사례, 한일 성공적 디지털 기업문화 구축 사례

##### □ (韓) 권낙현(權洛顯)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 대외협력센터장,

##### 현대자동차R&D품질강화추진위원

#####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 글로벌 환경문제(대기오염, 지구 온난화, 에너지), 주요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전망('50년 약 12조 달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고성능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확대, 민간투자활성화 계획(43조원)등 소개
- 글로벌 수소협력 네트워크 강화(신기술, 부품, 소재, 장비, 인프라기술 협력/ 수소 수입국과 수출국 간 협력 체계 구축/ 수소시장 확대를 통한 민간 수소산업 성장)
- 한일 수소 산업 분야 협력의 장점
  - △글로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과 일본은 민간 산업 협력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높음 △양국은 수소분야 기술 수준이 높아 기술 협력 시너지 클 것으로 예상 → Win-Win 전략 마련이 선행 △ 양국은 에너지 수입 구조 유사, 국제 수소 유통 시나리오 및 국제표준 등 공동 개발 용이

##### □ (日)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상황 ~현장보고~」

- 서울재팬클럽(SJC) 개요(한국사회·국민교류, 일본인학교 운영),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진출기업수, 투자실적), 주한일본기업의 문제점(SJC 회원수 감소, JETRO조사로 본 일본 기업 현황, 한일 문제), 요망사항 등을 발표
- '21년 회원수 : 351사(법인), 1,297명(개인), 기업현장 인재육성('15~'21 인턴실습 : 155사,



263명 실습), 한국진출 기업(SJC 351사, 산업부 통계 2,749사), 대한투자(467억달러, 15.7%)

○ 주한일본기업의 문제점

- ('20년 JETRO조사) 문제점 TOP3 ① 임금상승 ② 시장 부진 ③ 수주량 감소

한국은 :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

①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이익을 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성공적인 나라

② 단,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감소

③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장래의 사업 확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

④ 1년 전 조사로, 코로나에 의한 마이너스 영향 있음? 그러나 다른 나라·지역과 비교한 상대적인 입지는 변함이 없음

⑤ 큰 원인은 임금 상승.

- JETRO 일본계 기업조사~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 유무

\* 제조업의 35%, 비제조업의 68%가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회답

\* 불매 운동은 없어지지 않았고, 한일 문제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또다시 재연될 우려

○ 요망사항 : 양국 관계 개선 및 정상화

- 정치와 경제는 연결

- 양국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를 리스펙트

- 사실과 계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

- 상대방의 의견·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평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기를 기대

□ (日)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외국어대학(神田外語大学) 학장  
「청년들이 열어나가는 미래」

○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1980~2020년)' : 한국 전체 26.7%, 18~29세 54.5%

- 각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혹은 '어느 쪽인가 하면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

○ 한국어 능력시험 수험자 수(출처 : 한국교육재단)

- '97년 1,529명→ '21년 40,957명

○ 한국으로의 일본인 유학생 수(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

- '10년 3,153명→ '19년 7,235명

○ 향후 과제

- 한국어를 배운 학생의 취업 기회 창출, 한자 문화권의 재검토

○ 한국으로부터 배울점

- 일본인은 한국에서 투쟁심을 배워야 한다

중국 '속지 마라' 한국 '지면 안돼' 일본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 외교, 비즈니스 협상, 경쟁

- 젊은이들은 단기간이라도 한국유학을

## V.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대표단 명단

### 韓國側 代表團 名單

[SEOUL 參加者]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團 長	金 KIM	鉦 Yoon	(株)三養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顧問 (基調演說) (映像録画)	崔 CHEY	泰 源 Tae Won	SK Group 會長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副 團 長	尹 YOON	鍾 圭 Jong Kyoo	KB Financial Group Inc.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李 RHEE	仁 用 In Yong	三星電子(株)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李 LEE	輝 寧 Howard	世亞製鋼(株)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張 JANG	東 鉉 Dong Hyun	SK(株) 代表理事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徐 SEO	錫 崇 Seok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 賓 (來賓祝辭)	呂 YEO	翰 九 Han Koo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
來 賓	柳 YU	明 桓 Myung Hwan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前 外交通商部 長官
來 賓	權 KWON	泰 信 Tae Shin	全國經濟人聯合會 副會長
特別參加 (座 長)	廉 YEOM	載 鎬 Jae Ho	高麗大學校 名譽教授 (第19代 高麗大學校 總長) SK(株) 理事會議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李 LEE	東 根 Tong Keun	SamJong KPMG 常務
特別參加 (主題發表)	權 KWON	洛 顯 Nak Hyun	H2KOREA對外協力CENTER CENTER長
團 員	朴 PARK	南 淑 Nam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景 Gyung	載 Jae	(株)三進LND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相 Sang	俊 Joon	FINE INC. 代表理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洙 Soo	喆 Chul	(株)GH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泳 Young	官 Kwan	Toray尖端素材(株)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團	員	李 LEE	丞 Seung	鎬 Ho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社)韓日經濟協會 監查
團	員	黃 HWANG	昊 Ho	均 Kyoon	(株)大成INNOTECH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監查
團	員	高 KO	光 Kwang	立 Rip	越南經濟研究阮 副院長
團	員	高 KO	東 Dong	郁 Uk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團	員	具 KU	東 Dong	林 Lim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團	員	權 KWON	寧 Yeung	定 Jeung	KOMAR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東 Dong	宣 Sun	AASE 社長
團	員	金 KIM	寶 Bo	羅 Ra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部長
團	員	金 KIM	俸 Bong	萬 Man	全國經濟人聯合會 室長
團	員	金 KIM	英 Young	謙 Kyum	JungAng Consult.Co.Ltd. 技術顧問
團	員	金 KIM	永 Young	根 Geun	法務法人(有) 世宗 辯護士
團	員	金 KIM	玉 Ok	卿 Kyung	Super Light Case LTD,.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玕 Yun	姝 Joo	沖繩県 弁護士事務所 副所長
團	員	金 KIM	潤 Yoon	希 Hee	法務法人(有) 世宗 辯護士

團	員	金	鍾	瑞	Hanwha Total Petrochemical 代表理事社長
		KIM	Jong	Seo	
團	員	金	志	哲	Samho Green Investment, Inc. Team長
		KIM	Ji	Chul	
團	員	金	昌	淵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專門委員
		KIM	Chang	Yun	
團	員	金	憲	俊	SR4U COM.,Ltd Team長
		KIM	Heon	Joon	
團	員	金	賢	日	殷珉洋行 代表理事
		KIM	Hyun	Yel	
團	員	金	亨	植	DAE MYUNG ENG 代表
		KIM	Hyung	Sik	
團	員	羅	愛	蘭	N.S SIGN PLAN Co., Ltd. 代表理事
		NA	Ae	Ran	
團	員	昴		星	三鎬貿易(株) 代表理事
		HOSHI		Subaru	
團	員	朴	來	鏞	E&B Consulting 代表
		BAK	Lae	Yeoung	
團	員	朴	相	奎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副會長
		PARK	Sang	Kyu	
團	員	司 空		穆	產業研究院 研究委員
		SAKONG		Mok	
團	員	徐	永	錫	BOK創業投資 總括支配人
		SEO	Young	Seuk	
團	員	徐	禎	培	(株)三養社 常務
		SEO	Jeong	Bae	
團	員	申	京	美	Support For You 代表
		SHIN	Kyung	Mi	
團	員	申	京	秀	B&D Enterprise 副會長
		SHIN	Kyung	Suu	
團	員	若 井	修 二		韓國日研(株) 代表理事社長
		WAKAI		Shuji	
團	員	沈	昔	鎭	Humanwell International Co., Ltd 代表
		SHIM	Seog	Jin	
團	員	梁	承	範	承進國際 代表
		HENRY		YANG	

團	員	吳 OH	泰 Tae	憲 Heon	慶熙Cyber大學校 教授
團	員	柳 YU	承 Seung	辰 Jin	TAPS International Co.,Ltd 理事
團	員	李 LEE	南 Nam	恩 Eun	一虎ENG 代表理事
團	員	李 LEE	善 Sun	垺 Hwan	新星電子企業(株) 代表理事
團	員	李 LEE	英 Young	淑 Sook	Super Light Case LTD,. 理事
團	員	李 LEE	承 Sung	雨 Woo	Cruise Marina Bay Co., Ltd. 會長
團	員	李 LEE	龍 Yong	燮 Seop	亞太經濟研究阮 副院長
團	員	李 LEE	章 Jang	範 Bum	中小企業振興研究會 會長
團	員	李 LEE	宰 Jae	秀 Soo	全國經濟人聯合會 Team長
團	員	李 LEE	俊 Jun	雨 Woo	Zeobuilder Co.,Ltd. 部長
團	員	林 LIM	幸 Haeng	根 Eeun	HK Chem交易(株) 代表理事
團	員	張 JANG	星 Sung	均 gyun	Support For You 室長
團	員	鄭 JUNG	載 Jae	勳 Hun	DONGA SOCIO HOLDINGS 代表理事
團	員	鄭 JUNG	憲 Hugo	九 Hugo	Bio C&C COO
團	員	池 JI	鐘 Jong	敏 Min	WOOJUNG BAKEWARE, INC. 代表理事
團	員	晉 JIN	玉 Ok	童 Dong	新韓銀行 銀行長
團	員	秦 JIN	炯 Hyung	泰 Tae	SAMSUNG DIAMOND CORP 代表
團	員	蔡 CHAE	承 Seung	默 Mook	E&B Consulting 首席



團 員	崔 CHOI	珉 Min	碩 Suk	(株)韓永SEMICON 室長
團 員	崔 CHOI	承 Seung	均 Kyun	俊山貿易 代表
團 員	崔 CHOI	裕 Yoo	燮 Seob	Telcom CNS Co.,LTD 會長
團 員	洪 HONG	起 ky	正 Jeo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指導委員
團 員	黃 HWANG	眞 Jin	吾 O	三星電子(株) 部長
事 務 局	張 CHANG	震 Jin	旭 Wook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劉 YOO	崇 Sung	勳 H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趙 CHO	德 Duck	卯 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事 務 局	金 KIM	正 Jung	鎬 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徐 SUH	光 Kwang	賢 Hyu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李 LEE	裕 You	卿 Kyong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朴 PARK	忍 In	宣 Sun	(社)韓日經濟協會 研究員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THE 53<sup>rd</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21. 11. 2(火) SEOUL, KOREA / TOKYO, JAPAN

## 韓國側 代表團 名單

[TOKYO 參加者]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來 賓 (來賓祝辭)	姜 昌 一 Kang Chang Il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團 員	康 敬 瓚 KANG Kyung Chan	一般社團法人在日韓國商工會議所 事務局長
團 員	金 大 廈 KIM Dae Ha	(株)農心Japan 代表理事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金田事務所(株) 代表理事
團 員	金 和 男 KIM Hwa Nam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金 厚 德 KIM Hoo Duck	(株)三養社 東京支店 副支店長
團 員	文 祥 源 MOON Sang Won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支店長
團 員	朴 龍 奎 PARK Yong Gyu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支部長 (駐日韓國企業連合會事務局)
團 員	朴 容 珉 PARK Yong Min	韓國全國經濟人聯合會 東京事務所 所長
團 員	朴 泰 根 PARK Tae Keun	LS ELECTRIC Japan(株) 代表理事
團 員	辛 宇 淳 SHIN Woo Soon	True World Japan Inc. 代表理事社長
團 員	尹 瑛 駿 YOON Young Joon	SK hynix Japan Inc. 常務
團 員	李 順 炯 LEE Sun Hyeong	LS AUTOMOTIVE JAPAN CORP. 代表理事
團 員	林 暲 逸 LIM Kyung Il	CJ Japan Corp. 代表理事社長

團 員	趙	成	允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會長
	CHO	Seong	Yoon	
團 員	崔	起	佑	HMMJapan(株) 代表理事社長
	CHOI	Gi	Woo	
團 員	黃	鍾	吉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副會長
	HWANG	Jong	Kil	
observer	金	玟	澈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經濟公使
	KIM	Min	Cheol	
observer	李	鎔	煥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公使參事官
	LEE	Yong	Hwan	
observer	金	鍾	旻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參事官
	KIM	Jong	Min	
observer	金	琮	洛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2等書記官
	KIM	Jong	Lak	
observer	金	玟	姬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2等書記官
	KIM	Min	Jeong	
observer	尹	昭	熙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專門官
	YUN	So	Hee	
observer	河	泰	伸	駐日本大韓民國大使館 大使秘書官
	HA	Tae	Shin	

# 第53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 THE 53RD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21. 11. 2 SEOUL, KOREA / TOKYO, JAPAN

### 日本側 代表團 名 單

#### 《東京会場》

(敬称略・順不同)

団 長	佐々木 幹 夫 SASAKI MIKIO	(一社)日韓経済協会 会長
副 団 長 基調講演	麻 生 泰 ASO YUTAKA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麻生セメント㈱ 代表取締役会長
副 団 長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大垣精工㈱ 代表取締役会長
副 団 長	岡 素 之 OKA MOTOYU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商事㈱ 特別顧問
副 団 長	古 賀 信 行 KOGA NOBUYU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特別顧問
副 団 長	井 水 治 博 IMIZU HARU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日刊工業新聞社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池 田 正 己 IKEDA MASAK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ホテルオークラ東京 取締役会長
副 団 長	小 路 明 善 KOJI AKIYOSHI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取締役会長兼取締役会議長
副 団 長	村 山 良 MURAYAMA RYO	(一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東レ㈱ 顧問
副 団 長	岩 田 圭 一 IWATA KEIICHI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 住友化学㈱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村 上 晃 彦 MURAKAMI NOBUHIKO	(一社)日韓経済協会 諮問委員会副会長 トヨタ自動車㈱ 東アジア・オセアニア・中東本部 本部長
特別参加 発表者	宮 内 孝 久 MIYAUCHI TAKAHISA	神田外語大学 学長
団 員	太 田 毅 OOTA TAKESHI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秘書室長
団 員	竹 村 倫 人 TAKEMURA MICHITO	ANAホールディングス㈱ グループ経営戦略室 経営企画部 部長

団 員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社)韓日文化・産業交流協会 名誉会長
団 員	石 井 靖 幸 ISHII YASUYUKI	(公社)経済同友会 執行役
団 員	小松崎 寛 KOMATSUZAKI KAN	J X金属(株) 執行役員 総務部・法務部・人事部・環境安全部担当 総務部長
団 員	山 崎 洋 YAMAZAKI YO	住友化学(株) 総務部 主席部員
団 員	飯 塚 秀 之 IITSUKA HIDEYUKI	住友商事(株) グローバル業務部 部長代理
団 員	米 田 高 幸 KOMEDA TAKAYUKI	住友商事(株) グローバル業務部 課長代理
団 員	杉 浦 伸 明 SUGIURA NOBUAKI	豊田通商(株) 渉外部 海外渉外室 部長補
団 員	井 上 渉 INOUE WATARU	(株)日刊工業新聞社 執行役員 編集局長
団 員	野 村 良 寿 NOMURA YOSHIHISA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上席主幹
団 員	川 崎 茂 治 KAWASAKI SHIGEHARU	(一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
団 員	西 澤 正 純 NISHIZAWA MASAZUM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団 員	矢 田 久 俊 YADA HISATOSHI	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
団 員	山 本 大 介 YAMAMOTO DAISUKE	(一社)日本貿易会 政策業務第三グループ グループ長
団 員	小野村 拓 志 ONOMURA HIROSHI	(独)日本貿易振興機構 理事
団 員	中 井 邦 尚 NAKAI KUNIHISA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 主幹
団 員	河 野 円 洋 KAWANO MITSUHIRO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 企画課 課長代理
団 員	田 倉 三 葵 TAKURA MIZUKI	野村ホールディングス(株) 経営企画部 次長
団 員	山 野 陽 一 YAMANO YOICHI	(株)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統括本部 渉外主管
団 員	成 瀬 太 郎 NARUSE TARO	(株)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渉外統括本部 産業政策本部 国際渉外部 担当部長
団 員	小 島 正 寛 KOJIMA MASAHIRO	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 経済交流部長
団 員	杠 俊 彦 YUZURIHA TOSHIHIKO	丸紅(株) 市場業務部 アジア大洋州チーム長
団 員	トン シン Tong Xin	三井物産(株) 経営企画部 グローバル業務室 海外業務コーディネーター



団 員	篠 原 徹 也 SHINOHARA TETSUYA	三菱商事(株) 執行役員 地域総括部長
団 員	池 田 敦 IKEDA ATSUSHI	三菱商事(株) 地域総括部 東アジア・大洋州チーム チームリーダー
団 員	橋 本 栄 治 HASHIMOTO EIJI	三菱商事(株) 地域総括部 東アジア・大洋州チーム 次長
団 員	森 田 一 毅 MORITA KAZUKI	(株)交宣 代表取締役社長
団 員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一社)日韓経済協会 顧問
特別参加	小 野 健 ONO KEN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課長
特別参加	武 田 克 利 TAKEDA KATSUTOSHI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日韓交流室長
特別参加	宮 田 起三弘 MIYATA KIMIHIR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課長補佐
特別参加	山 村 真 人 YAMAMURA MASATO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 北東アジア第一課 外交実務研究員
特別参加	伊集院 健 夫 IJUIN TAKEO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地域通商政策研究官
特別参加	出 雲 晃 IZUMO AKIRA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
特別参加	末 永 敏 SUENAGA SATOSH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室長補佐
特別参加	石 丸 策 基 ISHIMARU KAZUK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 係長
特別参加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NR I 社会情報システム(株) シニアコンサルタント
特別参加	塚 本 壮 一 TSUKAMOTO SOICHI	桜美林大学 リベラルアーツ学群 教授
特別参加	玄 東 實 GEN TOJITSU	観光経済新聞社 顧問
特別参加	浜之上 幸 HAMANOUE MIYUKI	神田外語大学 副学長
特別参加	外間 エックスタイン 絵海 HOKAMA ECKSTEIN, EMI	神田外語大学 学長室
特別参加	朴 ジョンヨン PARK JEONG YONG	神田外語大学 体育スポーツセンター 准教授 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副センター長
特別参加	石 田 賢 ISHIDA MASARU	国士舘大学 経営学部 客員教授
特別参加	小 西 正 秀 KONISHI MASAhide	コクヨ(株) 特別顧問
特別参加	小 泉 慎 一 KOIZUMI SHINICHI	(株)ディー・エヌ・エー 常勤監査役

特別参加	峯 岸 博 MINEGISHI HIROSHI	日本経済新聞社 編集委員兼論説委員
特別参加	出 石 直 IDEISHI TADASHI	日本放送協会 解説主幹
特別参加	藤 吉 優 行 FUJIYOSHI YUKO	ヒューマンリンク㈱ みらい人事研究所 シニアアセッサー
特別参加	清 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ホテルオークラ 社友
特別参加	澤 田 克 己 SAWADA KATSUMI	毎日新聞社 論説委員
特別参加	朝 田 航 太 ASADA KOHTA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聖マリアンナ医科大学
特別参加	筑 波 まりも CHIKUBA MARIMO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立教大学
特別参加	山 口 華 梨 YAMAGUCHI KARIN	Japan-Korea Students Future Forum 成城大学
特別参加	山 崎 弘 YAMAZAKI HIROSHI	元(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務局	内 田 敏 明 UCHIDA TOSHIAKI	(一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事務局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前 田 一 郎 MAEDA ICHIRO	(一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
事務局	伊 藤 美千代 ITO MICHIO	(一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金 侑 貞 KIM YUJUNG	(一社)日韓経済協会 担当部長 青少年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千吉良 泰 三 CHIGIRA TAIZ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事務局	須 藤 俊 SUDO SHUN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部長
事務局	杉 原 景 SUGIHARA KE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担当部長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佐 近 恵 梨 SAKON ER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
事務局	梶 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課長代理
事務局	伊 沢 雅 子 ISAWA MASAK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 第53回 日 韓 経 済 人 会 議

## THE 53RD JAPAN-KOREA BUSINESS CONFERENCE

2021. 11. 2      SEOUL, KOREA / TOKYO, JAPAN

### 日本側 代表團 名 單

#### 《ソウル会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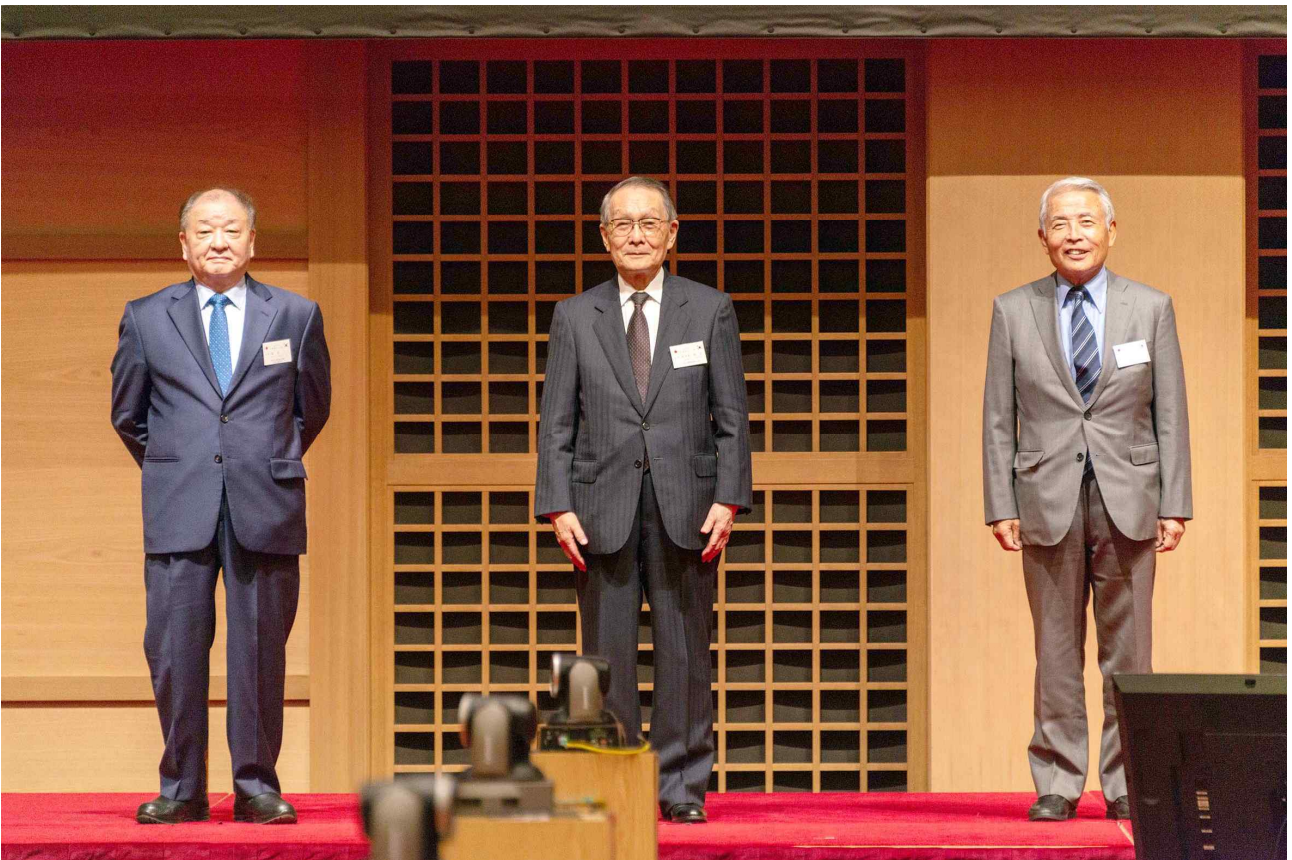
(敬称略・順不同)

来 賓	相 星 孝 一 AIBOSHI KOICH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特命全權大使
団 員 発表者	森 山 朋 之 MORIYAMA TOMOYUKI	SEOUL JAPAN CLUB 理事長 韓国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中 村 浩 一 NAKAMURA KOICHI	(株) I H I 韓国支店 支店長
団 員	長谷川 浩 二 HASEGAWA KOJI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岡 田 卓 也 OKADA TAKUYA	韓国住友商事(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小 峰 研 一 OMINE KENICHI	韓国双日(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片 岡 智 彦 KATAOKA TOMOHIKO	韓国東レ 副代表
団 員	吉 川 伸 一 YOSHIKAWA SHINICHI	韓国豊田通商(株) 社長
団 員	黄 仁 雨 HWANG INWOO	東友ファインケム(株) 副会長
団 員	秋 吉 芳 朗 AKIYOSHI YOSHIRO	東友ファインケム(株) 代表理事 副社長
団 員	栗 原 宏 和 KURIHARA HIROKAZU	日本航空(株) 韓国支店 支店長
団 員	橋 爪 孝 徳 HASHIZUME TAKANORI	日本商工会議所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三 根 伸太郎 MINE SHINTARO	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事務所 所長
団 員	当 間 正 明 TOMA MASAAKI	経済産業省 大臣官房 参事
団 員	大 谷 徹 OTANI TORU	(株)韓国日立 代表理事 社長

団 員	正 富 竜 一 MASATOMI RYUICHI	韓国丸紅(株) 代表理事 社長
団 員	中 川 一 也 NAKAGAWA KAZUYA	(株)みずほ銀行 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海 野 哲 夫 UNNO TETSUO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 韓国支店長
団 員	領 木 一 彦 RYOKI KAZUHIKO	(株)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岡 本 典 子 OKAMOTO NORIKO	韓国三井物産(株) 部長
団 員	佐 藤 利 宣 SATO TOSHINOBU	韓国三菱商事(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森 原 康 夫 MORIHARA YASUO	韓国三菱商事(株) 部長
団 員	藤 本 淳 FUJIMOTO JUN	(株)三菱ＵＦＪ銀行 ソウル支店長
特別参加	熊 谷 直 樹 KUMAGAI NAOK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次席公使
特別参加	浪 岡 大 介 NAMIOKA DAISUKE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使
特別参加	大 西 英 司 ONISHI EIJ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参事官
特別参加	山 本 幸 夫 YAMAMOTO YUKIO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書記官



(좌)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장동현 SK 대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이인용 삼성전자(주) 사장



(도쿄\_좌)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시멘트(주) 회장)





오찬회 참석 후, (좌)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주) 사장,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회의 종료후, 김윤 단장, 협회 상임이사 및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등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

## VI. 의 사 록



### 1. 개회식

#### 사회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하 동일]



지금부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그리고 한일산업 기술FAIR’가 여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에 깊은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한일경제협회 서석승입니다.

거리두기를 의식한 자리 배치로 되어 있지만 너무 밀집하여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지만 채널 확인 및 음량 확인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의 작년까지 52번을 69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고 올해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와

같이 비록 화상으로 일부 연결이 되지만 자리에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닦아온 길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더불어서 대면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저희들은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앞에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금년의 주제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동경과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의 단장 및 내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개는 여기 서울 회의장에 계신 단장과 내빈을 먼저 소개 올리고 이어서 도쿄 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일본 측 단장과 내빈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청중석을 향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 측 단장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내빈이시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입니다. 대외 직명은 Minister for Trade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 일본을 대표하시는 특명전권대사이시죠.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대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실은 오늘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단상에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지금 유럽의 정상회담 출장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도쿄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일본 측 단장과 내빈, 기조연설자들을 소개 올리하고자 합니다. 화상 준비가 되었나요? 먼저 일본 측 단장이신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인사를 해주실 주일본국대한민국 강창일 특명전권대사님께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측 기조 강연을 해 주실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 시멘트 회장님 부탁 올립니다. 회장님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국 단장님으로부터 개회 인사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한국 측 단장이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 (1) 개회인사

김 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과 일본 측 회장단,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님과 아이 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과 아소 유타카 회장님을 비롯한 발표자들께서 오늘 회의를 더욱 뜻깊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겪는 전 세계적 어려움 때문에, 화상회의로 양국을 연결하여 경제인회의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금년 만은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꼭 대면 회의를 통해서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왔습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더욱 큼니다.

1969년 이래 단 한 번도 중단이 된 적 없이 52차례의 밀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한일 양국경제인들의 상호이해와 원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 간 외교의 어려움에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일 경제인들이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바가 많고, 공통의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최대의 협력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사에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풀어야만 할 현안을 미래에 넘기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니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간은 이웃 나라이기에, 남달리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고대국가 때부터, 상호 우호로 교류했던 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거의 200건에 육박하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당장 오늘 한일협력 세미나 열렸고, 제14회 한일 산업기술FAIR가 일본 측과 공동으로 기술지도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동으로 십수년 간 지원해 오고 있는 고교생·대학생 교류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3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문제 인식의 바탕에서, 금년 회의의 주제를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로 정하고, 상호이해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한일 양국의 참석자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김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본 측 단장이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오늘 회의를 여는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부탁 올립니다.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측 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이신 강창일 대사님 각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이신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님 그리고 일본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본 측을 대표해서 개회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 말씀 있었지만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에 제1회를 개최한 이래로 올해로 제5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움에 부딪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매년 계속해왔습니다. 바로 ‘지속은 힘이다. 계속은 힘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인회의는 민간교류의 등불을 지키고자 하는 성원에 힘입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 제52회 회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지만 도쿄, 서울의 양 행사장 합하여 200명 이상의 경제인들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주셨고 SDGs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뜻은 1년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번 제53회에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회의주제는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입니다. 최악이라고 회자되는 한일관계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 편에서 한일경제인들의 상호신뢰는 흔들림 없이 굳건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연결고리, 유대관계를 더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SDGs를 포함하여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 디지털전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서로 많은 공통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상호협력하고 지혜를 서로 내고 정보 공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경제인회의 운영위원회로 개최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현재 어려운 한일관계에 입각하여 차세대 방향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미래로 양국의 유대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역 간의 교류 확대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체어맨을 맡으셨던 아소 회장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있었지만 한일경제인회의와 병행하여 또 다른 행사장에서는 한일산업기술FAIR2021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페어에서는 상담회와 세미나 등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최방식이 되었지만 상담회는 한일 합하여 50개 사가 신청해주셨고 세미나에도 50명 이상의 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와 함께 한일민간경제교류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효과도 있어서인지 코로나 확진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일한경제협회, 한일경제협회는 활동의 원점인 세 개의 기둥, 즉 경제교류, 인재교류, 문화교류 등 이들 교류의 내실화, 확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계속 활동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활동에 많은 이해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라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활발하게 서로 논의를 하여 상호결실이 있는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내빈인사

**사회 :** 사사키 단장님 감사합니다. 양측의 단장님께서 공히 언급해주신 산업기술페어는 이 호텔의 3층과 36층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참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내빈께 인사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Trade Minister이시죠. 여한구 본부장님 단상에 모십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여한구(呂翰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님,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님, 그리고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양국 협의체로서, 1969년 처음 발족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도쿄 간 온라인 연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참석하신 경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양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국은 상호 경제협력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유기적 분업 관계를 구축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교 당시에 2억 불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은 현재 300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7위, 5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투자 협력 또한 활발하여 일본은 한국의 제2위의 투자국으로서 3천여 개에 가까운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양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찬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비록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파생된 생산재고 부족, 운송 차질 등의 문제들이 국가 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속도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강국인 한국과 반도체 제조장비,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태지역 경제 공동체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세계 인구의 40%, 교역의 50%를 담당하는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RCEP을 조속히

발효하여 기업들이 더 큰 시장과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 양대 메가 FTA 인 RCEP, CPTPP 뿐만 아니라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표되는 통상협정들이 체결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통상질서에 변화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상호 공조 하에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계기에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진 한일 양국에 있어 탄소중립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돌 위에서도 3년(石の上にも3年)’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돌 위 일지라도 3년간 앉아 있으면 따뜻해진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다 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이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면 더욱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는 오늘 행사의 주제와 같이 이 자리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동시 개최되는 ‘한일 산업기술 페어 2021’에서도 양국 기업들 간 산업, 기술 교류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Trade Minister 이시니까 여러 가지 무게감이 실린 말씀 해주시네요. 저희 경제인들에게 ‘돌 위에 3년’이라는 속담을 인용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조금 인위적으로 돌이 따뜻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 올리고요. 다음은 주한일본국대사관 아이보시 코이치 특명전권대사님 단상에 모시고자 합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사께서는 한국말이 꽤 유창 하십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보시 코이치(相屋孝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김윤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님, 강창일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금 소개를 받은 금년 2월에 한국에 부임한 아이보시입니다.

한국에는 13년 만에 세 번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임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전근을 해왔습니다. 오늘 도쿄 회의장에 출석하신 일본 측의 경제인 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되긴 합니다만 제53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가 개최되게 된 점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김윤 회장님 그리고 한일경제인 협회 여러분 그리고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을 비롯한 일한경제협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온지 벌써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가운데 그다지 긍정적인 뉴스를 지금까지 전달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회담이 열리는 등 양국 간의 현안 그리고 지역의 안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건전한 한일경제를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한일양국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고 많은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양국의 교역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자면 양국 모두 지방창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한 화제 및 문제로는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 등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아까 여한구 본부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COP26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오늘 아침 일본에서 출발해서 글래스고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이는 양국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증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리고 2030년의 온실효과가스 감축목표(NDC)의 감축 폭을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탈석탄, 즉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력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산업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의 양국 모두에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이상으로 한미일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 삼국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면 일본 또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넓은 확대 등 인도태평양 구조 그리고 안전보장에도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일양국에서는 백신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어제부터였나요. 한국에서도 코로나에 따른 제한조치의 완화가 지금 도모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은 일본의 입국에 있어서 격리기간이 단축되기도 하고요.

또한, 일본의 국비유학생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완화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적교류를 재개할 때까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일 경제인 간에도 대면을 하는 교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아이보시 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축사의 마지막으로 도쿄 회의장을 연결해서 임석해주신 주일본대한민국 강창일 특명전권대사님의 축사 말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대사님 준비되셨으면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경제인 여러분,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9년 한일경제인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은 양국 경제인들 간에 쌓아온 끈끈한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님, 기조연설을 맡아 주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일본 측의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도쿄와 서울에서 함께 하고 계신 양국 경제인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의 긴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경제 회복과 교류 협력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양국 경제인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국 간 인적 왕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이웃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 보급 확대와 더불어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과 그간 위축되었던 인적·물적 교류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기후 위기, 미중 대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작년 하반기 이후의 한일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지혜롭게 극복하고 경색된 한일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작년과 최근에 실시된 한일 공동 여론조사를 살펴 보면 양국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국 국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으며,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말씀하셨고 기시다 총리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국 경제인들도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네 강창일 대사님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양측 단장님 두 분의 개회사에 이어서 세 분께 축사를 청해 들었는데 이제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기념촬영을 했으면 합니다. 언론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사무국과 호텔 측에서는 단상을 조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호명하는 한국 측 부단장님 중심으로 무대에 모셔서 잠깐 기념촬영을 하고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님 다음에는 장동현 사장님, 이휘령 부회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무대 위로 잠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은 정중하게 지정된 좌석에 모시도록 하시고요. 언론 카메라를 위해서 앞예를 정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좋은 날인데 참석 귀빈들께서 웃어 주셔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단장님을 비롯한 귀빈분들 밝은 웃음의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이제 카메라 다 찍으셨나요? 퇴장하셔도 되나요? 오늘 카메라의 열기가 매우 뜨겁네요. 단장, 부단장님, 특명전권대사님, 본부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로써 개회식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아래의 자리로 모신 다음에 바로 본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너무나 시간을 촉박하게 다루는 귀빈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장하시는 내빈 분들에게 큰 박수로 배웅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Trade Minister 여한구 본부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퇴장하시네요. 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 2. 기조연설

**사회 :** 휴식시간은 조금 있다가 갖도록 하고 바로 기조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의 기조연설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꼭 육성으로 하고 싶어 하셨으나 지금 정상회담 수행 차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자리하지 못하셨음을 매우 안타깝게 그리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태원 기조연설자인 회장님께서 이미 세계 기업이 된 SK를 이끌어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업의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장과 최종현 학술원 이사장 그리고 SK그룹을 소위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입니다. 관련되어서 귀한 주제에 부합하는 말씀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기술 쪽으로 연결 준비되었습니다. 기술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기조연설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태원(崔泰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SK그룹 회장**



**동영상 내용 :** 지금 한일 관계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사 문제부터 양국

정부의 갈등까지 어느 부분 하나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국가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인들 간의 소통도 꼭 막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하고 시원한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계 차원의 작은 해법을 찾아볼 기회마저 아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인으로서 가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지난 2년간 팬데믹의 유례없는 위협과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와 사회는 단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건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양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미래로 갈수록 우리를 더욱 괴롭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Will the next generation have harder lives than curren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은 지금 세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10대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현재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반대의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제적 유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문제가 돈 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Tool이 아무것도 없다고 변명하기에는 경제인들이 가장 잘 활용 가능한 수단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 한일 경제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 혹시, 국가와 정부 차원에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고 해서 경제인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닐는지요.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기업과 한류 상품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에서 철수나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역 규모를 보십시오. 19년 이후 두 나라의 교역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경제인들이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이미 많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이윤 추구는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들에 혜택을 주겠지만 양국 발전에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가 양극화되고, 국가 간의 장벽이 심화되며, 환경 전체가 파괴되어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있어야 기업도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의 복잡성에 비춰볼 때 현재와 같이 ‘개별 기업 간의 협력’ 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 단위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

지만 양국 기업인들과 경제 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기존에는 불가능하다 여겨왔던 고질적 사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의 대승적 협력이 없다면, 앞으로도 기업들은 그저 기회나 보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데 급급한 존재라는 현재의 인식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양국 경제인이 힘을 모아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양국은 판이하게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잘 갖춰진 경제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이 여실히 부족합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양국이 서로를 도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취업 비자 요건을 개선해서 양국이 우수한 청년들을 Pooling하고 한일 합동 구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취업 박람회를 활성화하며 기업 간 전문 인력을 교류하는 등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정도인데,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선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양국의 경제인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가자는 제안입니다. 포럼, 협의체, 재단 등 어떤 방식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별 기업 간 협력 관계보다 폭과 깊이를 확대하여 양국 경제계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전대, 정치/외교적인 관계 복원에도 상당히 기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창조하는 미래’라는 회의 주제처럼 저의 오늘 제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계속 진척되기를 바라며 훗날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네,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리라 믿어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들께서는 동영상 후에 최태원 회장님께서 많은 박수 받으셨다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경 포럼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제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일본 측 기조 강연 부탁드립니다 하는데요. 먼저 도쿄 회의장에 나와 계신 일한경제협회 우치다 전무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고자 합니다. 우치다 전무님 마이크 접속 가능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한경제협회의 우치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해주실 아소 유타카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소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아소 그룹은 큐슈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을 해온 기업입니다. 아소 시멘트의 대표되는 건축자재 분야 이외에도 의료, 교육, 호텔, 슈퍼마켓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소 회장님께서서는 큐슈경제연합회의 명예 회장님 이시고 일한경제협회에서도 17년 동안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협회에서 주재하는 일한,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চে어맨으로서 회의를 주도하시는 등 한일관계의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험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소 회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아소시멘트(주) 회장**



지금 소개받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입니다. 기조 강연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도 양국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형태이지만 무사히 개최되는 점에서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김운 회장님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귀중한 시간입니다만 재단, 협회가 50년 이상 걸쳐서 유지해온 한일교류활동에 대해 그리고 1987년 이 협회에 들어온 이후 거의 해마다 경제인회의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한일, 일한 신산업무역회의의 চে어맨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을 맡게 된 것은 2004년입니다. 한일산업무역회의는 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첫 번째로 열렸던 해입니다. 2000년대 전반부의 경제인회의는 한일양국의 무역, 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협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아시아와 전 세계 속에서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로 교류 논의의 주제가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또한, 한일 양국 각각의 상황, 양국의 관계에 의해서 주제가 바뀌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시도에 맞게 한걸음 앞서 한일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53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중단된 적 없이 양국 경제인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겨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결과를 내간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이 액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계 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행동, 사명,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제1회로 개최되었던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재작년 2019년까지는 총 26회 개최가 되었고 총 2300명이 넘는 양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교류 활동은 이후로도 이어져서 2007년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OB, OG단체를 만들어 '한일학생미래회의'라는 이름으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교류를 계속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율성, 주체성, 이 모든 것에 대한 행동력과 실행 능력은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그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기를 그것이 미래를 위한 매우 깊은 주제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앞으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 양국 정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된 한일 무역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최 중요, 즉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만들어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바로 이러한 산업기술협력 재단입니다만 지금은 주된 사업내용이 양국의 중세,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력의 강화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한일양국의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한 주한일본기업의 CSR활동 사업,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 후의 서울재팬클럽 및 많은 주한일본기업의 협조와 많은 한국 대학생 여러분의 관심 하에 2020년까지 135개에 달하는 주한일본기업과 단체가 참가를 했었고요. 226명에 달하는 한국 대학생이 참가기업과 단체에서 현장 체험을 했고 일본의 기업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참가자 약 40%가 일본기업에 취업했다는 것을 그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기업과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청년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인재를 뽑은 기업이 채용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생동감 그리고 어학능력은 일본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보다도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적극적임과 에너지는 일본의 젊은이들의 조금은 내성적이고 어학력이 부족한 가운데 매우 큰 좋은 자극을 주는, 우리와 같은 세대는 이렇게 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앞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교류의 의미가 정말 매우 크다는 것을 회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일교류사업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부터 시작된 한일경제연계 제3국 시찰 미션입니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에 의한 제3국 공동 진출 프로젝트는 지금 110건 이상입니다.

양국에서 제3국에서 공동으로 진출한 프로젝트의 사업비용은 총 27조 엔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양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류에 의한 이점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를 더욱더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협동 가능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재단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자치단체국제화협회 CLAIR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양국의 자매도시 제휴건 수는 165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71개국 1,781건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즉, 미국이 제휴를 맺고 있는,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건수의 전체 10%가 한일 양국 간의 교류 제휴이며 미국, 중국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비중입니다.

각각 역사와 문화에 의한 제휴기도 합니다만 외교관

등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맺어지는 제휴도 있고 혹은 스포츠나 학교간의 교류 등 또 오래된 경우는 1968년부터 시작된 지역 간 교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재단이 협력을 하고 있는 큐슈경제연합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주재하고 있는 큐슈한국경제교류회의라든가 호쿠리쿠한국경제교류회의와 같이 이들과 좋은 연계를 함으로써 매우 긴밀하고 농밀한 지속가능한 한일 양국의 지역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일 양국 교류에 있어서 비록 작긴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일한경제협회가 1960년에 설립되었고 1969년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53년간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개최되어온 이 회의,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논의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양국 간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하는 즉, 전쟁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이 우리의 진전, 전진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 시대에 대한 역사의견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에 충분치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현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SK그룹의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여론을 형성

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양국의 경제인재, 인적, 문화교류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책임, 사명감, 보람을 가지고 한일양국의 교류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아소 회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논의하며 그 논의의 결과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서울 회의장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서석송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 :** 우치다 전무이사님 감사합니다. 아소 유타카 회장님이 기조연설을 해주시면서 한국 청년 인재들의 적극성 그리고 놀라운 어학 능력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소 회장님의 오랜 시간 동안의 공헌과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큐슈경제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한큐슈경제회의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제도 이 호텔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간 열정, 지도력으로 한국청년인재들의 취업과 관련된 여러 활동으로 귀한 조언 주시고 이끌어주신 아소 회장님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저희 한국의 사무국에서 깊은 경의와 고마움을 표하고요.

아소 회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추후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호텔에서 11월 30일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본 ‘한일 양국기업의 제3국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분 모시고 일본어

로만 진행을 하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의 기조연설자인 아소 유타카 회장님 말씀을 끝으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커피는 방역의 문제 상 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앉으신 자리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릴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 등에도 밀집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상보다 진행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일찍 진행을 하고 나중에 염재호 총장님께서 맞아 주실 좌장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앉은 자리에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잠깐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후 3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측은 커피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식 이후 기조연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전체회의

**사회 :** 사무국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복도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회장으로 천천히 모시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5시 정각에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단상의 자리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 해주실 세 분과 다음에 좌장을 맡아주실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인 염재호 교수님을 단상으로 천천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모리야마 사장님, 이동근 상무님, 권낙현 센터장님 계시다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세 분과 특히 좌장을 맡아주실 염재호 전 총장님의 마이크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염재호 총장님 마이크를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제 쪽이 꺼지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장 참석을 해주셨고 아까 보셨겠지만 많은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응해주셨습니다. 원래 10월 하순까지 상황은

절대로 49명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일본 회의장과도 원만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회의장 연결이 잘 되어 계신가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일경제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회의의 진행이 됩니다. 일본 회의장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서울 회의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코디네이터, 발표자를 소개 올리고 도쿄 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발표자를 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함을 거론하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좌장,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전 총장, 명예교수 염재호 총장님이십니다. 여러 활동 중에 SK 이사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잘 준비된 발표를 해주실 세분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정 KPMG 이동근 상무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한국미쓰이물산의 대표이사 모리야마 토모유키 사장님이십니다.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을 두 번째로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권낙현 대외협력센터장이십니다. 인사 청합니다.

다음은 동경 회의장이 연결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회의장에 나와 계신 간다 외국어 대학의 미야우치 다카히사 학장님 계시면 인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염재호 전 총장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제가 사회진행자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분 당 15분의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만 토론의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혹시 길어질 경우 저희들이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분 전에는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엄수 또한 원활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발표회와 토론회를 염재호 코디네이터,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께 부탁 올리도록 합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좌장 : 염재호(廉載鎬) 고려대학교 교수(前총장) · SK(주) 이사회회장**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자리에 모처럼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좌장을 맡아서 회의를 이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토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령으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셨습시다만 1인당 1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발표는 한국이 먼저하고 그리고 일본, 한국, 일본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분의 발표가 끝나고 플로어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4개의 주제가 사실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앞으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 분, 한 분이 발표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나중에 토론한다는 것이든가 엮어서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실 때에는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동근 삼정 KPMG 상무님이신데요. 상무님은 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Ernst & Young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삼정 KPMG의 상무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동근(李東根)**

**SamJong KPMG 상무**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정 KPMG의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혁신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특히 한일경제인들의 상호협력 그리고 지혜공유, 해결책 모색을 촉진해서 오늘 회의의 주제인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우스갯소리로 퀴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장 촉진 시키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정답은 CEO도 아니고 CIO도 아니고 코로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전까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디지털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잘 추진이 되지 않다가 코로나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공한 사례보다는 성공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디지털만이 아닌데 나머지 요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바꾸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든가 혹은 산업이라든가 경쟁 환경의 부분들을 감안한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답습한다라든가 혹은 디지털이 무조건 전통적인 기업의 역량보다 우월하다는 착각들이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혁신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정의를 제가 다시 내려다보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기업 문화일 수도 있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혁신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행에 있어서 리더가 직접 디지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디지털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었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을 다른 말로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변화가 빠르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에게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코로나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라는 예측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앞으로 디지털로 인해서 변화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언택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하는 업무기능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산업 자체가 비대면 산업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유통이었다가 무인 유통이라는 산업이 만들어지고 교육도 원격교육, 의료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기존의 일하는 기능이 비대면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도 비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서베이한 결과가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는 어쨌든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에 대한 역할입니다. 오프라인은 중요하지 않고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떠한 밸런스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이 어떻게 대체 하거나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밸런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오프라인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일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원격근무, 재택근무를 위한 다양한 화상회의 라든가 협업솔루션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솔루션을 도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더 효율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오프라인이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문화적인 부분, 프로세스적인 부분, 일하는 조직구성원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시킬지 목표를 만들고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스마트팩토리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보손실과 리드타임을 축소하는 관점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동화, 무인화까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의 센싱한 부분들이 실제 구매, 생산, 물류, 판매까지의 전체 공급망에서의 리드타임을 축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공급망 재편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무실에서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부분입니다. 저희가 흔히 로보틱프로세스오토메이션(Robotic Process Automation)이라고 하는 디지털 직원이 사무실에 도입이 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사람을 대체해서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대신을 하고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고부가가치에 집중할 것인지 찾아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다 보면 기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도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라든가 실제 개발과 운영과 동시에 하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데브옵스, 이런 부분 제가 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인프라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이 일하는 구조까지 모두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긴밀한 조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혁신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디지털 기술기반 기업전략이라고 썼던 부분들이 다수의 회사들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추진하면 잘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왼쪽과 같이 디지털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꿀 것 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약어가 DT 아닙니까. 그래서 DT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digital driven business transformation 으로 중간에 driven과 business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현재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야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비즈니스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잘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혁신은 꼭 Bottom-up보다는 Top-Down이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제가 JOHN DEERE라고 하는 농기계 제조회사가 우리 회사는 농기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밑에 실무진이 얘기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회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변화를 어떻게 잘 포착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결국 B2C사업에는 고객을 잘 이해해서 고객 중심으로 실행하는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적으로 The Five Mys라고 하는 동기, 관심, 연결, 시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최근 MZ 세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주요 구성원이 되는 세대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과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캐치할 것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고객에 대한 경험을 혁신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모으고 초개인화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플라이휠을 만드는 것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업문화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CX라고 해서 Customer Experience라고 하는 고객 경험을 혁신하면 기업의 성과가 좋아진다고 하는 많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X라고 하는 Employee Experience라고 하는 조직구성원의 경험을 혁신하면 고객 경험의 혁신이 되더라 따라서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가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면서 일하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EX를 갖추고 CX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고객 성과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여섯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Top-Down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을 중심에 두고 고객의 변화를 캐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플랫폼을 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선순환 플라이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 중심 경험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경험을 혁신 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제언을 한 장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들은 개별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일 회원사 간의 성공사례를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는 것과 같이 어렵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파급효과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교류를 증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들을 같이 논의해나가면서 해결책들을 같이 모색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팅한 주제인 한국 일본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네, 고맙습니다. 이동근 상무님 흥미롭고 중요한 문을 여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세계의 문화 또는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21세기의 중심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AI라든가 Data라든가 우리 모두를 바꾸어 놓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문화에서도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재택근무라든가 일 자체를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많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업문화라든가 조직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 서로가 케이스를 공유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해서 변화하는 한국과 일본기업의 성장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측의 발표자입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님이신데요. 이사장님은 한국미쓰이물산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1967년에 서울재팬클럽이 약 400여 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일본의 기업을 한국에서 대표하고 계시는 SJCI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상황, 현장 보고라는 생생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I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쓰이물산의 모리야마입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현재 서울재팬

클럽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재팬클럽 SJC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일본기업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SJC는 1997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세계 일본계 활동 조직이 통합해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SJC의 역사는 24년 차를 맞이하였고 전신인 서울일본인회 때부터 헤아려본다면 55년의 역사를 갖는 조직입니다.

회원 수는 기업회원이 약 350개 회사, 개인회원이 1,300명 정도 됩니다. 활동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회원 상호 간의 교류와 친목, 한일 양국의 친선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입기업들로부터 널리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한국 정부의 건의하고 있습니다.

회원 기업의 상세 내역은 이쪽 표와 원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전기기계, 수송, 서비스, 화학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과의 교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류인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오케대회를 주최하고 있고 또한, 한일포토콘테스트, 교류말하기대회, 한일축제한마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과 올해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아동 복지시설 방문 기부, 지역 청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일본계 기업 CEO 초청 강연회, 한국의 각 대학교에서 하는 일본계 기업의 CEO초청 강연회는 올해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 학생의 인턴십 실습생 수용입니다. 2015년 이후 SJC 기업에서 인턴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7년 동안 155개 사 263명의 학생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일본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일본기업을 알 수 있는 기획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용기업 수가 줄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도 의욕적인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SJC는 서울일본인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지원 하에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현재 약 300명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표는 일본인 학교의 학생 수 그리고 SJC 기업회원, 개인회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초록색이 학생 수, 빨간색이 기업회원 수, 파란색이 개인회원 수입니다. 주황색 원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것과 같이 모두 2013년, 2014년이 절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투자실적입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신고 기준이고요. 초록색이 도착기준입니다. 2012년을 절정으로 감소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표는 국가별 대한투자실적인데요. 누계액 금액의 1위는 미국, 일본은 거기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면 주한일본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JC의 회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최근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도 회의에서 SJC 회원 수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기업회원 수가 390개 사, 개인회원 수가 1,5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9월에는 각각 351개 사, 1,297명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기업회원은 10%, 개인회원은 20%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기간의 데이터인데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을 보면 기업회원은 57개사가 감소했습니다. 99개사가 입회했고 156개사가 탈퇴했습니다. 이 탈퇴한 156개사에 대해서 SJC에서는 탈퇴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1%가 일본인이 더 이상 없거나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 또한, 한국에서의 철수가 주요 탈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탈퇴하는 기업의 SJC 내의 소속은 수송·서비스 관련, 전자, 전기 기계·기계 관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JETRO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JETRO는 일본무역진흥기구인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독립행정법인입니다. JETRO는 일본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20개국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개국 지역 중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순위는 1위부터 19위까지 됩니다.

오늘은 2020년 8~9월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에선 일본계 기업의 127개사, 제조업 53개사, 비제조업 74개사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2020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흑자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71.8%로 1위였습니다.

즉 한국이 진출한 일본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만 이 흑자 비율 그 자체는 2018년 조사 때에는 79.1%였습니다. 따라서 비율표 자체는 2년 동안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대만이 71.7%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하였으며 최하위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1~2년 동안의 사업 전개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현상 유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한국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나타난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6.8%로 16위 밑에서 4번째였습니다. 그보다 아래는 홍콩, 마카오, 스리랑카, 뉴질랜드였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2018년 조사 때에는 확대 방침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5%로 이때도 전체적으로는 17위, 밑에서 3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추월해서 한 단계 올라갔는데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자체는 15.7% 감소해서 약 3분의 2수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상유지는 63%, 축소는 9.5%였습니다.

그러면 일본계 기업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우측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문제점 Top3를 좌측에 썼습니다. 1위가 종업원의 임금 상승으로 66.7%의 기업이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2위는 판매시장침체로 52.9%, 3위는 거래처 발주량 감소였습니다.

임금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8년 조사 때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그 영향이 있는 가능성이 큼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 유럽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주한유럽기업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나 물어보았더니 첫 번째는 인건비 인상이었고요. 이어서는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습니다. 임금상승은 일본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은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사업 확대는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년쯤 전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컸을 때의 조사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2018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한국의 위상은 큰 변함은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임금상승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을 포함한 경쟁상대와의 치열한 경쟁도 있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지만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 한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JETRO 조사의 결과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hearing를 했습니다. 응답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 부분이 한일관계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입니다.

좌측이 제조업이고 34.7%, 우측은 비제조업으로 67.6%였습니다. 이 조사가 실시된 것은 작년 2020년이고 2018년에는 징용공 임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년에는 대한수출 규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의 조사였는데요. 특히 비제조업에서는 대단히 높은 비율로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매 운동은 2019년에 크게 확산 되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행동제한도 있어서 어디까지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자동차와 맥주의 매출이 회복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치고 있어서 불매 운동은 진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렉서스의 월별 판매대수입니다. 파란색이 2019년, 오렌지색이 2020년, 회색이 2021년의

실적입니다. 월간 최소 판매대수는 400대 정도이고 3년 동안 계속 이 정도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2019년 9월, 10월에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규제강화 이전에 2019년 상반기 월간 1,400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아직 3분의 2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아사히 맥주, 롯데 아사히 주류의 과거 3년 동안의 매출 비교입니다. 적어도 2020년까지는 크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몇 군데 스스로 저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서울에 있는 일본요리점, 일식집 인데요.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4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했어요.

일본의 유명스포츠 의류 판매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감각적으로 약 30% 정도 떨어졌다고 응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국의 소비자 조사가 실시된 바가 있는데 한국 소비자의 무려 70% 이상이 불매 운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하고 40% 이상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B2C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B2B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제품에서 다른 나라 제품으로 잠재적으로 대체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수출규제강화를 계기로 한국기업이 조달 분산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불매 운동은 없어지지 않았고 예전보다는 가라앉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문제의 향후 전개에 따라서는 다시 혼란의 불이 붙어서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저희 일본계 기업의 큰 우려 사항입니다. 임금상승, 노조 문제와 함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회의 때 아소 회장님은 한국의 발표자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의 발표자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도 주제가 함께 창조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SJC를 대표해서 현재 저희 일본기업이 놓여 있는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 생각을 언급하겠습니다. 민간기업으로서 저희들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고객 파트너와의 win-win 관계 구축과 확대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한국기업의 성장도 포함해서 사업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한일협력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로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으면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합 연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기회를 보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원산화 요구라든지 조달 포트폴리오 재검토에 대응하는 일본기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 스미토모화학이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용 재료의 생산능력 확대를 결정한 것을 보도한 뉴스입니다. 해외 대형 플랜트 안전은 과거의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중국의 건설사가 두드러지게 부상했지만 실제로 함께 일을 해보았더니

역시 한국기업이 더 계약을 잘 지키고 같은 개념과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재인식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ESG 관련 온난화대책 등 새로운 움직임도 있습니다. 모든지 신속하게 움직이는 한국기업의 대응력과 기초 기술소재에 강한 일본의 연대조합, 수소 관련과 배터리, 엔터테인먼트 등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는 한국의 고령자 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공통적 과제의 협력, 비즈니스 기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천연자원도 없이 기술과 속도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의 바람,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노력하겠지만 이를 넘어선 부분으로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주재원으로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면서 이웃나라끼리 사이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게 잃을 것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일 문제는 한국의 진출한 일본기업에 상당히 큰 마이너 스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다른 차원 투트랙이니까 경제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한때 있었지만 지금 정치와 경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대화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지만 사실과 계약에 따른 합리적 협의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정론은 피하고 상대의 대응과 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양국 간의 대화가 실시되고 있어서 든든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간교류가 지속되고, 다양한 단체가 양국 간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것도 훌륭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에도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일본의 입국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비즈니스와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바람인데요. 이러한 회의에서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감정적인 반응은 피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종식되면 일본에 가고 싶다. 일본 음식과 온천을 즐기고 싶다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한국 분들과 골프를 치면 일본의 골프용품을 애용하십니다. 젝시오, 미즈노, 브리지스톤, 혼마야마, 스릭스 TV를 보면 TV 광고에서 타이거우즈가 브리지스톤 골프 좋아요. 최고예요라고 한국어로 말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타이거우즈 사진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제 밑의 직원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 고객분들, 파트너분들과 협력해서 win-win 관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가일층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네 모리야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가 악화 되면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서울 재팬클럽의 숫자가 줄어 들고 일본의 학교도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마치 코로나 사태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히려 처음 발표를 하신 것처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촉매제가 되어서 여태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기업 투자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 간의 국제 제조업에 있어서의 분업 형상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의 모델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임금상승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럽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오고 역사적으로 갈등하며 수 백년 있다가 이제는 EU가 탄생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향후 한 20년만 지나면 세 나라를 합하게 되었을 때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경제적인 것이 되는데 이 세 나라가 합할 생각들 서로 이야기를 할 생각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G7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G20를 요즘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한 번도 한중일 삼국의 정상회담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미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G5가 모여서 아시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항로가 개척이 된다고 했을 때 공동투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비전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부분에  
얽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어려운 현상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촉매제로 해서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처럼  
지금 한일관계가 최대로 악화된 상태에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경제의 협력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또는 미래에 대한  
공동투자,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축이 수소  
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한 것인데요. 권낙현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대외협력센터장님께서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  
니다.

권 센터장님은 현대자동차에서 R&B품질 강화 추진  
위원도 맡으셨고요. 특히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개발을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  
에너지에 대한 것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낙현(權洛顯)**

**H2KOREA대외협력센터장 현대자동차R&D품질  
강화추진위원**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권낙현입니다. 저는 한국수소

산업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죠. H2KOREA  
대외협력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R&D  
품질강화 추진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오늘 귀한 포럼에 연설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오늘을 계기로  
한일비즈니스가 좀더 발전되어서 내년을 좀 더  
한일 양국이 승승장구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에서는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국제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수소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오늘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전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데 각자 국가들마다의 사정, 여러  
가지의 조건, 환경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상당히 환경문제가 크게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6개월 동안 교류가  
끊기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냐면 약 8.3조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환경오염이 오면  
훨씬 더 심하게 인류가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당면  
과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에너지의  
전략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전 세계  
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이대로 지속하더  
라도 2050 탄소중립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낮추겠다는, 온도를 유지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COP26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핵심이 기존 탄소사회 말하자면 이제 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왔던 탄소 에너지를 탈피해서 결국은 그린 에너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와 또 하나의 축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전략적으로 수소를 큰 미래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죠. P4G 서울 선언문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냐면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는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수소가 중요한 국가정책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에 대한 장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인류는 연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 유한하다는 것인데요. 수소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물에서 다시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사용을 하면 환원되면 다시 물로 되는 무한한 에너지이고요. 또한, 수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지구상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운송이 쉬운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수소도 LNG처럼 각 국가 별로 이송을 해서 에너지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쉐어가 안되죠. 각 국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송전망을 깔기는 너무 멀죠. 전기 에너지는 약간 국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수소는

에너지를 지금 가스나 이런 것처럼 쉐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2030까지 하이드로젠카운슬에서 액화수소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느냐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을 들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까지 3.7불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각각에 대한 가격들을 예측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2050년 정도가 되면 훨씬 더 이 가격이 떨어져서 저렴한 수소가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수소경제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표의 그래프는 2050 유럽수소 수요에 대한 예측입니다. 물론 아시아도 많이 있지만 유럽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2050년까지 약 3.5%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수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수소는 우리가 비로 만드는 암모니아를 만들 때 수소를 많이 씁니다. 메탄올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원료로 쓰고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료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양이 증가하여 이 정도로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측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수소 시장의 전망에 대한 효과입니다. 지금 2050년에 보면 EU, 미국, 아시아의 어느 정도 시장이 예측될 것인가를 종합해서 보면 아시아 시장이 제일 크고요. 약 5.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12조 달러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2020 중국의 GDP가 총 13.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주요국 수소경제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나라가 30여개국에 달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국가들을 보면 각각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 전략이 유사하고요. 다음에 EU, 독일은 수소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생산에 많이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UAE나 사우디 같은 경우도 수소 생산국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랍과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수소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래의 수소 생산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수소경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표준화 전략로드맵, 한국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 신산업규제혁신계획, 수소 인프라 및 수소충전소 구축방안 이런 것들을 했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법이 명실공히 한국의 수소경제를 육성시키는 시범법이 되고요. 그래서 수소경제위원회도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경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탄소중립2055를 발표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수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21년도의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하면서 이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그 다음에 발전 연료전지, 수소생산량 그리고 수소 가격 이런 것들의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새로운 신에너지시장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소차 개발현황입니다. 현재 수소차는 넥소가 16,0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택시가 서울에 2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쓰레기 수거차에도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에 수소 트럭을 45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키로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종합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해비트럭들도 할 예정이고 트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쪽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성능차라든가 신개념 운송 수단 그리고 휴대용 연료전지나 가전용 연료전지 그리고 산업용이나 빌딩 이런 데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소선박이라든가 비행체 그리고 고속 철도 이런 데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전략이 필요한데 한국은 수소충전소가 현재는 고압충전소방식인데 앞으로는 액화 방식으로 해야겠다. 그 이유가 도심 같은 경우는 고압충전소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충전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수소이송방식에서 현재는 이송하는 데에 너무 많은 요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송 방법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증축 트레일러 자체를 좀 더 고압으로 500bar 이상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액화수소 탱크 로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관 이송, 가까운 거리는 배관 이송이 제일 저렴하죠. 그리고 배관함이 깔린다는 것은 하나의 배관이 저장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많이 생산하면 저장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배관함을 많이 깔다

보면 이것이 다 저장공간으로 작용해서 효과가 두 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에 지금 현재 주요소를 건설하듯이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경제성이나 확장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구축전략을 마련해서 배치전략을 짜서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소산업의 현황은 아까 차는 말씀드렸고요. 연료전지 발전용 같은 경우는 현재 673MW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용은 7.1MW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지역 전체로 봤을 때 많은 수소 R&D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규제 샌드박스를 푸는 수소 활성화 충전소구축모델, 수소 생산클러스터, 수소 시범도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맞는 수소 정책에 따라서 지금 수소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2030년경 되면 한국에서 가시적으로 수소 도시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투자활성화 계획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에 3차수소 경제위원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8.5조 원 투자를 하겠다. 대규모 액화 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생산이나 연료전지 발전 쪽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1.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투자 모빌리티 쪽으로 육성하는 부분이고요. 포스코도 10조 원 정도 투자해서 부생수소 생산이나 해외 그린수소 도입, 수소 환원 제철 기반의 플랜트를 구축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화나 효성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도 약 1.2조 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네트워크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러 연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소를 하다보니까 한 국가만 잘해가지고는 전체적인 글로벌수소경제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양국이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 다자간 협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경제는 탄소 경제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 그 다음에 유통, 저장, 활용 분야에 걸쳐서 벨류체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모든 기술을 보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위해서는 국제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협력네트워크에서 최태원 회장님께서 아까 강조하셨는데 기업들 개개인별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장점이 있는데 2~3개 기업들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수소경제 산업이 발전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범국가적인 어떤 플랫폼 속에서 활발한 논의와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수소산업협력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1+1=2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너지인데요. 그만큼 수소경제로 가려면 빠른 이행 방법이 필요한데요.

현재 기후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안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협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기술을 빨리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민간산업협력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동경에 가서 회의를 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시차도 없고요. 상당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국은 수소 분야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협력을 할 때에는 당연히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수소생산이나 생산기술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일본은 소재나 부품 이런데 상당히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런데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양국은 에너지 수입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한국도 94%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구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드맵 전략을 보면 향후 일본도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소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짚다든가 그 다음에 국제 수소 유통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네, 권낙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한일 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해봤을 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 일본인 친구가 통산성의 에너지청에 근무 하던 관료가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

했던 것이 석유가 중심이 된 OPEC 석유수출협력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OPEC를 만들지 못할까.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가 아니고 Importing Countries가 되면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하면 굉장히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또한 시베리아 유전도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공동 개발해서 끌고 오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불신 때문에 서로 안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미국은 2026년에 모든 상용차는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못하고 바뀌야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배터리를 써야 하는데 전기 배터리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수소전지를 써야 해서 수소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대형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등 전부다 수소전지를 써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 해야 하고요.

중국도 작년에 14차 5개년계획을 발표했는데 4대 중점과제 중에 하나가 신에너지인데 수소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열어주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과 더불어서 수소 에너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특히 기술 쪽으로도 뛰어난 입장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미래시장을 개척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 도쿄 회의장에 계신 미야우치 다카히사 간다외국어대학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미야우치 학장님은 미즈비스 상사에서 대표이사, 부사장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해주실 것은 「청년들이 열여가는 미래」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아소 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최태원

회장님도 이야기하셨던 양국의 고급인력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봤을 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트고 열어가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야우치 다카히사(宮内 孝久)**  
**간다외국어대학(神田外語大学) 학장**



마스크 벗고 실례하겠습니다. 염재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상사에서 근무했던 40년 동안 한국 기업들과 힘든 협상을 거듭하면서 협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유럽, 미국과도 또 일본과도 다른 독특한 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생존 근성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비즈니스 현장을 떠나 대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매일 일본의 청년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사회의 무엇에 매료되었고 어떤 자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을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것은 한국 특유의 당당히 드러나는 경쟁심이라고 할까요. 투쟁심 그리고 깊은 따뜻한 인정, 정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한일 간의 교류가 침체되고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조사를 통해서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살부터 29살 연령층에서는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최근 20년 동안 일관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제가 학장을 맡고 있는 칸다외국어대학의 한국어 전공은 올해부터 정원을 2배인 56명으로 늘렸는데요. 일본의 대학업계는 지금 저출산과 진학률이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일본대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정원미달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말하자면 쇠퇴산업, 구조불황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한국어 전공은 예외이고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칸다외국어대학은 30년 전에 개학을 하였고 한 학년 당 약 1,000명 정도의 중규모 대학입니다.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 한국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어 붐에 불을 지핀 것은 KPOP music입니다. KPOP은 미국 빌보드차트에 항상 올라와 있으며 특히 유명한 것이 BTS이죠. BTS가 지난 9월 UN 총회 SDGs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오프닝퍼포먼스 댄스죠. 이것은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외교에 대한 어느 나라에 어떻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친근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살부터 29까지의 청년층만 이 빨간색 선을 봐주시면 절반 이상이 친근감을 느낀다. 친근감을 느끼는 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꼭 이 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좌측의 그래프는 일본에서 실시한 한국어 점정시험 즉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자 추이입니다. 이 TOPIK은 대한민국교육부 국립국제



교육원이 주최하고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일본의 응시자를 보시면 거의 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성장이 정체된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우측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래프인데요. 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의 한국어 전공을 지원하는 수험자 수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인데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가면 갈수록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본의 청년들을 계속 매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희 칸다외국어학교 학생 22명한테 한사람, 한사람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22명은 이미 한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 혹은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22명 중 남학생은 1명밖에 없는데요. 이 여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주로 중학생 때였답니다. 계기는 KPOP, 한국 드라마, 학교 간의 문화교류 등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엄마가 한류드라마에 빠져서 함께 한류드라마를 보면서 친근감을 느꼈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있었다는 점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댄스 스쿨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오디션에서 선발된 엘리트들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에도 KPOP스타가 되고 싶은 소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소년들이 고시엔

(甲子園)을 목표로 해서 또 나아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처럼 활약하고 싶다고 동경하는 것처럼 KPOP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일본의 소녀, 소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서 서울에서 오디션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 후보들과 경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칸다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주로 그녀들인데요. 여학생들이 KPOP이 JPOP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KPOP 가수들의 아주 훌륭한, 탁월한 가창력과 댄스 파워에 압도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주 치열한 오디션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돌들은 JPOP의 아이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도의 프로페셔널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남성 아이돌들은 자상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팬과 아이돌들이 SNS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오시(推し)라고 해서 일본의 오시는 서포터즈, 최애 이런 의미인데요. 아이돌들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정말 춤을 연습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가수들은 그냥 단순히 귀엽기만 하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돌들은 경쟁을 이겨낸 프로이고 세계의 무대에 나가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KPOP 아이돌들의 경쟁심, 투쟁심에 대한 존경의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도 KPOP 댄스 스쿨이 있어서 100명 이상이 서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한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에게 외국어로 한국어는 어휘도 문법도 공통성이 있어서 익숙하고 친숙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능력시험 등이 있는데요. 어학능력 시험 2급 정도까지는 비교적 단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그 자신의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에 내가 꽤 잘 하네라고 하면서 자기 긍정감이 높아져서 학습 의욕이 고취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느낌인데요. 한국의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대학교 재학 때 성장 되는 폭은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성장 폭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어는 조금 유사할 수 있지만 유럽 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관습이라든지 사회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기 위한 유학, 이것은 정말 감성 풍부한 청년 시대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학을 가면 무엇이 좋냐면 일본에서 배웠던 한국어 기초가 한국 현지에 가면 바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날이 한국어가 느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 가서 조금 지내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하다는 경험을 저도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더 깊어지면 질수록 한국과 일본의 관습,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로 알면 알수록,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아주 깊이가 있다. 매력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말하기는 한국분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다들 배려심이 있고 정이 깊다. 일본인을 특별취급 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받아준다. 그리고 모두 다 친절하다. 자상하다. 일본의 서민 동네와 같이 정이 깊은 사회가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학습득의 장벽이 낮은 만큼 한국 사회에 들어

가기가 쉽고 인간 관계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깊은 이문학, 그리니까 서로 다른 문화교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럽 언어 등 먼 지역의 언어 같은 경우는 어학 그 자체의 습득단계 즉 초급, 중급, 고급 단계마다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문화교류단계 까지 실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거와는 상당히 다르죠.

일본인 전체적으로 한국과의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이들은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학생의 한국 유학 축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어 교습법을 학습 하는 학생 외에는 취업할 때 한국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계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아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인턴 이것이 참 효과적입니다. 저도 롯데 회장님께 부탁해서 롯데 에서 인턴을 많이 수용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회를 많이 늘려주셔서 정말 청년들의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한일 청년교류를 통해서 한자 문화권을 다시 재고할 수 없을까입니다. 한국어 단어는 한자를 음독했다고 할까요? 한자의 음독이 한국어에 맞는데 구어체와 한자를 조합한 일본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한글 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 단어의 구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를 쓰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한자를 잘 믹스한 일본어 화자가 한글과 한자를 조합시킨 한국어 부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에게 또한 일본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투쟁심인 것 같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일본 플레이어한테 들었는데요. 일본인만의 토너먼트라면 긴장감이 떨어져서 경기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수가 그 토너먼트에 들어오면 긴장감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앞서 한국식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교, 비즈니스 협상도 한국은 대단히 독특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도덕관념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빠, 엄마들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참고로 중국은 속지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 가치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지 말아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가치관을 비빔밥 상태로 믹스를 하면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까 한국에 유학을 다녀와라 그리고 경쟁심을 단련시키고 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일본어능력시험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서 서로 상호 이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대단히 밝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좌장(염재호) :** 네, 간다외국어대학의 미야우치 총장님 감사합니다. 미래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한일 경제인들이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럽은 이미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또는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라고 해서 유럽에는 모든 EU의 대학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한 학기씩 어느 곳에 가서든 강의를 듣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중일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 서울에서는 동경, 북경, 상해 이 모든 곳을 한 시간 남짓이면 가까운 나라인데도 서로 교류가 없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10~20년 내외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못지 않은 대학생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아주 좋은 발표를 저희가 잘 들었고요. 이제 남은 시간 5시까지 30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듣고요. 한 두분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받고 일본 동경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혹은 어느 분한테 질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명해드리면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주신 다음에 마이크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분 이내에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두 세분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점(金英謙)

JungAng Consult.Co.Ltd. 기술고문



서울의 중앙컨설팅트라는 엔지니어링회사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리야마 토모유키 사장님에게 여쭙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마이카 그러니까 운모 중에서 폴리리시오나이트라는 광물에 포함된 리튬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일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좌장(염재호) :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회의주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 한국 분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오늘도 별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요. 아 저쪽에 한 분 손을 드셨는데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사공목(司空穆)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의 사공목이라고 합니다. 권낙현님에게 여쭙보겠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화 이슈가 아주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재 내지 보완으로 한국에서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발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소라는 것은 산소, 탄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것이 그 다음이 아닐까 얘기하고 계신데요. 권낙현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한국의 탄소 경제의 탈탄소 문제해결에 있어서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며 얼마나 더 유익할 것이고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염재호) : 네 고맙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혹시 있으시면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한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김봉만(金俸萬)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네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입니다. 김봉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상당히 잘 들었고 많은 교류방안이 나왔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어야만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한경제협회도 있고 한일경제협회도 있고 전경련도 있고 서울재팬클럽도 있는데 이 4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기업인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는 비즈니스 트랙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행동,

공동성명서라든가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장(염재호) :** 네, 고맙습니다. 아마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공동성명이 있을 텐데 그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듣고 시간을 약간 여유가 있으면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리야마 사장님, 권낙현 센터장님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모리야마 사장님 얘기 해주시죠.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 朋之)**  
SJC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주) 사장



네, 지금 질문해준 것이 개별적인 비즈니스 가능성인데요. SJC는 가입기업이 있지만 거기서 개별적인 비즈니스 상대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하고요. 개인적인 저희 기업은 광물 쪽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한국기업이 요즘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리튬전지 이런 개발에 특히 주력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일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요. 어떻게 경쟁력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한국에서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도 포함해서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직접적인 비즈니스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만약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로 좋으시다면 나중에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좌장(염재호) :** 네, 고맙습니다. 한일 양국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희토류라든가 귀한 자원들에 대한 것을 새로운 광물질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 기업들 간의 협력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권낙현 센터장님.

**권낙현(權洛顯)**  
H2KOREA대외협력센터장 현대자동차R&D품질 강화추진위원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를 전부다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현재도 전력은 수소가 일부의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수소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보겠습니다. 이 믹스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때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높을 때 많이 발생하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장해야

되고요. 저녁때면 태양광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간헐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사회에서는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린다든다. 아니면 어떤 발전을 할 때에는 일정한 전력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때 수소에너지의 경우 잉여 전력들을 수소로 만들었다가 다시 반환하죠.

그래서 전력에 대한 그리드 기술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믹스해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이고요.

또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소의 양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요. 현재는 탄소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소 대응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단계에서 혼소 발전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스발전에서 수소가스 일부를 혼합해서 쓰는 것이죠. 호주 같은 곳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생 되는 쇼트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체로 보면 전체 에너지에서 어떻게 하면 재생 에너지를 높일 것이냐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장(염재호) :** 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질문하고 답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쿄 회의장 현장에서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 도쿄에서 받는 것을 저희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회의장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네, 도쿄 회의장입니다. 염재호 코디네이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쿄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을 들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한경제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신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 오카 특별고문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카 모토유키(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네, 지명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긍정적인 발언이 많아서 저는 많이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입니다.

한일의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호 이해, 상호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호이해, 상호

신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아소 회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 말씀해주셨습시다만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에 진출한다거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학생의 일본 취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성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양국 경제계에 계시는 상호 이해, 상호신뢰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상호이해, 상호신뢰가 아쉽게도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이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양국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차원에서 정상 회담 또는 각 정치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국민 차원에서 상호이해,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예전부터 늘 생각했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초·중·고 교육,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지도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의 교류단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있으셨습시다만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초·중·고 교육단계에서부터도 가능하다면 각각의 나라가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이와 같은 형태로 오늘 회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미래의 창조 파트너십의 선언이라는 것을 양국 정부가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88년의 공동선언에서 저희도 참고할만한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귀중한 발언 감사합니다. 한 분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한국기업 대표 하셔서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일본에서도 신라면이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농심재팬의 대표이사이신 김대하 대표님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김대하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대하(金大廈)

(주)농심재팬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김대하입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를 위해 힘써주신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2년 가까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신 저희 기업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한일 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류를 멈추지 않고 협력해서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해주신 일본 기업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국은 경제교류 외에도 다양한 문화교류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콘텐츠 개발로 한일 간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대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회의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서로 비슷한 입장이라서 그런지 한국미쓰이 물산의 모리야마 토모유키 사장님의 이 문구가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공감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간다. 가능한 빨리 이러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현장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김대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에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경제인회의가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마이크를 서울 회의장으로 건네 드리겠습니다. 염재호 코디네이터님 부탁드립니다.

**좌장(염재호) :** 도쿄 회의장에서의 좋은 코멘트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칸다외국어대학의 미야우치 총장님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래 세대도 서로 간의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심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고요.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서 강조하는 폐를 끼치지 않는 교양이나 문화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좋은 발표 그리고 분야는 각자 달랐지만 미래 지향적이고 한일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두 나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논의된 것 같습니다.

신에너지 그 다음에 학생들 간의 교류의 문제, 일본

에서 특별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두 나라의 협력과 상호신뢰와 이해를 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세분 한국에서, 일본에서 발표를 해주신 총장님을 비롯해서요. 저희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나가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모리야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재팬클럽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미야우치 총장님은 학생들은 점점 관심은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지사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이제 모색하고 한일 양국 간에 서로 긴밀한 교류가 앞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권낙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경제나 신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고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가지고 오늘 활기차고 뜻 깊은 회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다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네, 염재호 좌장님. 그리고 일본의 화상으로 연결되어서 네 분의 소중한 발표자들 경청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좌장님과 네 분의 발표자뿐 만 아니라 일본 회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오후 호텔 측 굉장히 많은 성의를 들여서 회장을 준비해주셨고요. 한국보다 많은 참석자가 지금 임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기술력으로 지금 보좌를 해주신 기술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뒤에서, 좁은 공간에서 저희들을 보필해주고 계십니다만 김혜원, 이정남 두 분의 훌륭한 도움 없이는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 측 특히 롯데호텔 측은 오늘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해주신 회장님께서 급한 일로 임석을 못하셨지만 호텔 측의 동료들에게 큰 당부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인 회의와 산업기술협력페어를 도우라는 특별한 당부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측이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텔과 기술진과 두 분의 훌륭한 통역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전체 회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짧은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양국의 공동성명안을 배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주시고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충분히 갖기 위해서 다섯시 오분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다섯시 오분까지는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사무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공동성명안을 각 책상에 배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단상에 나와 계신 좌장님과 세 분 발표자, 그리고 일본 회의장에 계시는 미야우치 학장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회의의 주제가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인데 좌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모리야마 사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투트랙이라고 하는 정치와 외교, 경제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 모습과 다르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가슴에 남고요.

미야우치 학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제인회의 취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휴식 시간 약 15분 조금 안되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를 잘 이끌어주신 발표자님들과 좌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4. 폐회식

##### (1)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사회 :** 다섯시 오분이 되어가네요. 사무국 요원들께서는 휴식 복도에 계시는 참가 귀빈들 회의장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경청하는 귀빈들께서 끝없이 많이 계십니다만 한국대표단의 경제인뿐만 아니고 유명한 전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이보시 대사님은 급한 일을 떠나셨지만 일본대사관 구마가이 총괄 공사께서도, 미야오카 경제 공사께서도 자리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시 오분이 되었으므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경 회의장 잘 들리시나요. 연결이 잘되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평년에는 이틀을 꼭 채우는 회의였습시다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반나절이었지만 다 느끼신 것처럼 집약된 시간이었지만 충실한 의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에 공동성명안 한국어 본과 일본어 본이 같이 나누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회의장에서도 공동성명안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공동성명안을 양국의 사무국에서 낭독형식으로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참석자 의견을 들어서요. 김윤 회장님에게 공동성명안이 배포가 안된 것 같네요.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측 공동성명안입니다. 채택하기 전이라서 그것은 한국 측을 대표해서 사회 진행을 맡고 있는 저 서석승이 보고 올리도록 하고 일본 측 낭독은 일한 경제협회 우치다 전무이사께 부탁드립니다.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공동성명안을 제가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한국어본 공동성명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안]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1년 11월 2일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일본국 도쿄도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98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08명이 참가했다.

세계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진척되는 등 호전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인적왕래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걸림돌이며, 감염 예방을 위한 자숙과 제한이 경제 활동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루빨리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더욱이, 한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 대한 영향은 이전 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관계 개선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미래를 향한 발걸음도 진전되고 있다. 양국 기업에 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양국에 있어서,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 공통의 과제이지만, 그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며, 이의 달성을 향한 한일의 제휴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경제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경제·인재·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새로운 미래 창조, 경제교류 확대,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한일 경제교류 확대 및 제3국에서의 협업 등이, 기업 이익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유대 강화로, 또한 관련 지역에 대한 공헌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환경과 탈탄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많으며,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는 중요하며, 한일 경제인은 오랜기간 협력해 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간다.

2. 교류·우호 인프라

연계·협조의 기반은 상호이해와 신뢰이다. 한일

경제인은, 양국 연계의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또한 미래를 향한 한일 우호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의 차세대 교류와 지역 간 등 풀뿌리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 3. 정부에 대한 기대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다음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2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21년 11월 2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사회 :** 그러면 일본 측에 마이크를 넘겨서 우치다 전무님께 공동성명안의 일본어버전을 낭독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연결이 잘 되어 계신가요?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도쿄 회의장입니다. 일본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한경제협회 우치다 전무이사 일본어로 낭독, 이하 생략)

**사회 :** 우치다 전무이사님 낭독 감사합니다. 선명하게 한국 회의장에도 낭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일본 회의장에 계신 108분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98분의 참석자분들에게 방금 일본어와 한국어로 낭독이 된 공동성명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견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고 발언해주시고 혹시나 이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조금 후에 회장님,

단장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일본 회의장은 어떠십니까? 이견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양측의 단장님을 대신해서 양쪽의 회의장에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공동성명안을 채택하는 데에 이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큰 박수로 공동성명안 채택에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회의장 그리고 한국 회의장 공동성명안이 채택되어서 공동성명으로 언론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간단한 폐회식을 진행할 것인데요.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방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소찬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귀한 시간 내서 조금 남아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53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단장님께 폐회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쿄 회의장에 계시는 일본 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 폐회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단장이신 김윤 회장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말씀 청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 (2) 양국단장 폐회인사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여러분 오늘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작년에 이어 도쿄와 서울의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반나절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에는 합시다만 솔직한 의견교환을 나누었고 귀중하고 건설적인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해주신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경제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의 경제, 인재, 문화에 걸친 중요한 세 가지 축의 교류가 중요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등을 위해 조금 더 힘차게 지금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이 된 것에 대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는 매우 바쁘신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참석해주셨고 그리고 강창일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강연을 해주신 발표자 분들, 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양국의 발전과 우호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에 계시는 경제인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왕래가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도쿄에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이야말로 도쿄 회의장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뵈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 폐회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는 사사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을 꼭 서울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강렬한 열망으로 준비를 했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미 귀한 말씀에 박수를 쳤지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서 10년이 넘도록 특별한 관심과 열정, 지도력으로 일한경제협회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경의 다시 한번 표하면서 저희 한국 회장으로부터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보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윤 회장님은 단상에 잠깐 모셔서 폐회 인사말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 한국측 단장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네, 오늘도 회의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반나절 짧은 시간이지만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열띤 토론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 여부와 논의내용은 언제나 양국 간

민간교류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한일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거듭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미래 발전 그리고 공존, 공영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늘 공동성명에 담긴 한일 경제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비록 화상으로나마 동경 회의장에 참석하신 경제인분들과 한기련 동료들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회의를 위해 애써주신 한일 양측의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발표자, 참석자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동시에 개최된 산업기술페어와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양국기업의 관계자분들의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실질적 성과와 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 개최될 동경 회의는 직접 만나서 대면 회의로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단장님, 김윤 단장님 폐회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양측 단장님으로부터 직접 수고해주신 양측의 호텔, 기술진, 통역, 오늘 산업기술협력페어에 참가해주시고 협력세미나에 참석해주셨던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있었습니다. 저도 사무국으로서 통역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올리고 이것으로 제53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공지사항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옆방에서 준비 중인 만찬이 있으니 혹시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꼭 남으셔서 화합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러면 채택해주신 공동성명은 아까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던 언론에 모두 배포를 하고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정부 측 인사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양국의 경제인이 담은 뜻을 잘 경청해주시기를 거듭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제53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회의장에 참석해주신 108명, 98명 모든 참석자 귀빈들에게 사무국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